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8.31.(목)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8인(손영준 위원장, 강건기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안호림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8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영준 위원장님이 학교 행사 때문에 불참하셨기 때문에 회의는 제가 진행 하겠습니다. 강건기 위원님도 사내행사 때문에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인순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허인순 위원

- 외국인 범죄 증가세...10월 말까지 국제범죄 집중단속, 지난 8월13일 날 보도된 방송이었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의 외국인 피의자 비율이 증가 추세라며 단속에 나선다는 뉴스였습니다. 4대 범죄의 외국인 피의자 비율은 지난 2019년 32%에서 지난해 28%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6월 다시 30%로 늘었고 경찰은 상반기에만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와 도박, 조직범죄 등 혐의로 외국인 770여 명을 검거하고 143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주요 범죄 항목이 소개된 점 범죄율 추이도 알게 되어 유익한 기사였는데 마지막 부분 그래픽 자막과 여성 앵커의 실수 '보상' 부분이 '보장'으로 표기 및 발음이 이루어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신속뉴스] 서울교육청 관계자, 백강현 측 접촉도 않고 "다시 등교키로" 발언 논란, 10세 영재소년이 서울과학고 재학 중 학폭 등 논란으로 자퇴서를 낸 사건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한 점을 지적한 뉴스로 교육청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보도 후 사실 확인하자 변명하는 내용으로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뭔가 투명하지 않은 내막을 추측게 하는 기사로 서울과학고 소개, 10세 영재 백강현 군에 대한 소개가 함께 보도가 되어주었다면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향후 국내 영재 조기교육의 커리큘럼, 교우관계, 사회성 함양의 문제 등을 취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우리나라 조기교육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수 있는 기획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 국제 범죄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내용의 단신이었습니다만, 단신 스크립대로만 했다 그러면 '보장'이라는 말이 맞는데 아마도 단신이 아니라 다른 대답이었으면 앵커가 잘못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부 시책 실태 보도 및 비판 기사 바람직해, 지난 8.22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100년 노포 육성 목표인데...폐업 늘어나는 백년가게'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송출됨. 이 기사는 정부가 장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난 2018년 시작한 '백년가게' 프로젝트가 정책목표에 비취 지원이 따르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시책을 현장에서 점검해 비판한 기사임. 주요 내용은 올해 해당 지원예산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급감하면서 이미 지정된 백년가게 중 경영난에 처한 가게에 자금 등 경영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임. 정부 시책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언론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정부 시책의 경우 생색내기에 머물지 않고 정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고 보완을 주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향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책 목표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보도 태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 순직 인정 안 된 한 초등교사 죽음에 의문 제기한 연합뉴스TV 기자 정신 돌보여, 연합뉴스TV 나경렬 기자는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 모 선생님이 정부로부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에 주목함. 이에 나 기자는 김 씨의 의료기록과 일기장 등 전체를 입수하고 분석해 김 씨가 담임 업무를 맡았을 때와 맡지 않았을 때의 심리 상태가 현저하게 달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상에 의한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에 의문을 제기 기사를 지난 8.21일 리포트함. 나 기자가 의료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김 씨가 교직을 시작한 후 담임 업무를 맡았는데 이때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만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언급한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병이 깊어지자 휴직을 한 후 담임 업무와 거리가 멀어지자 복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만큼 심리적 안정감을 나타냈지만 기대와는 달리 복직 후 다시 담임을 맡고 학부모와의 민원에 시달리다 몇 개월 만에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임. 이어 나 기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김 씨의 사망 이면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학교 측은 어떤 조사 결과도 밝히지 않고 추락사로 기록했고, 정부도 이 죽음을 공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고 순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통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꼬집고 있음. 기자는 사실이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추적하고 취재하는 것이 본질이라 생각함. 특히 이 기사는 일상에서 무심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음에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의료기록과 일기장을 입수해 분석하고 리포트한 기자 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매우 의미 있는 단독 보도였다고 생각함.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정책의 공백이 없도록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화려하고, 용두사미 정책이 되지 않도록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부 나경렬 기자 리포트를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러 언론에서 교직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조명하고 또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하면서 교직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개선점을 강구할 수 있도록 취재해 보겠습니다.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8월19일 [이광빈의 프리즘] '모방 흥기난동을 막아라'...온라인서 퍼지는 독버

첫, 이광빈의 뉴스 프리즘의 모방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기획 의도는 좋았다고 본다 하지만 모방 범죄의 사건만 나열했을 뿐 무엇을 말하고자하는지 대안이 없는 마무리로 준비가 되지 않은 시간 채우기식 방송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뉴스보도에 대하여 모방 범죄가 있을 수 있으므로 TV 방송시 그런 범죄 절차나 구체적인 방법들을 시청자 위원회 회의할 때 마다 보도하지 말기를 요청해왔다. 하여 뉴스프리즘의 이광빈 기자의 '모방 흥기난동을 막아라' 라는 보도 제목이 시선을 집중시켜 시청을 해보았는데, 그동안 모방 범죄에 대하여 나열만 하는 보도로 일관하였으며, 결론 또한 "온라인에선 거대자기 환상이 만연돼 있습니다. ..., ..., ... 온라인에서부터 이런 환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로 무엇을 보도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했다. 보도의 기획성은 좋았으나 대책이나 현실감이 없는 결론으로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그동안 모방 범죄에 대하여 상기시켜는 보도로 스트레스를 가중 시킬 뿐 아니라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방 범죄 목록을 제시해 주는 보도가 된 느낌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 없는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하며, 보도 기획에 맞는 대안과 결론을 통해서 시청자들을 감동 시켜주었으면 한다.

- 연합뉴스TV의 7월22일 [현장잇슈]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 어떻게 같이 가야 할까...시민들의 의견은, 현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한 교사들의 교권 강화의 목소리가 높여지고 교사들의 추모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방송 보도에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현재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 보는 균형 잡힌 보도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과 교육부, 교육청 등 교권 강화와 아동학대 관련 법 등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자칫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사항들이 여론에 밀려 공정하게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직접 거리에 나가서 취재를 통해서 들어 봄으로써 시청자들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좋은 보도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강서구 황정인 시민의 인터뷰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는 선생님을 믿고 훈육을 부탁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심을 갖고, 선생님은 학생을 낮게 보지 않는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공교육이 활성화 되고 교권이 회복되며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사회의 이슈와 문제점들을 균형 있는 보도와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오늘 불참하신 손영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층 탐사 분석 보도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사실 분석 보도, 심층 보도라고 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이나 코너를 갖고 있지만, 아직 여건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뉴스프리즘'의 경우에 저희가 일주일에 기간을 두고 기자 3명이 투입돼서 리포트 3건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일주일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취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 스페셜이라는 일요일 20분 남짓 분량으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투입하는 인력이 팀별로 PD 한 명, 작가 한 명, 서브 작가 한 명 해서 3명이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한 편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층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 보면 PD 3~4명이 한 팀을 이루고 제작 기간도 6주에서 8주입니다. 저희보다 거의 두세 배 이상의 기간과 인력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층분석 보도

라고 해도 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체계를 갖춰 정비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언론에서 교권만 강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스승을 아버지처럼 예우했었기 때문에 교권의 문제보다는 학생 인권의 문제가 더 있었죠. 지금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으로만 경도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 인권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제출)

- 8.11 일자 뉴스투나잇 "여가부·전북도'책임론'..... 고강도 감사 불가피" 보도에서 잼버리 행사가 막을 내리면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관할 지자체인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잼버리 행사에 고강도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도하면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2017년 개최지 선정 이후 6년이라는 준비시간에도 총체적 준비 부실로 파행됐다고 분석하고, 대표적 부실 원인으로 거의 전 부처에 지원 과제를 맡겨 잼버리 대회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와 특히, 조직위원장을 맡은 여가부의 운영 능력 미달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인 중 하나로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한 전라북도가 잼버리 행사를 유치한 뒤 대회 준비보다 새만금 부지 기반시설 구축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보도는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규명뿐만 아니라 문제점 분석, 국제행사와 관련한 중앙부처, 지자체,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결론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내용과 관련은 없지만, 6년 전부터 준비한 잼버리 행사가 운영 파행이 되고서야 국내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면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 8.12일(토) 오전 10시경부터 일요일까지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서 기사 검색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아서 기사 검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미리 이용 불편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잼버리 문제는 책임론이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이 돼서 언론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는 유치를 해서 실무 책임을 담당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충분히 지원 받은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북도만 책임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정부도 잼버리 시점이 가까워 질수록 조정 및 감독 능력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무책임에서 전북도가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 저희 TV홈페이지가 가끔씩 이런 오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빨리 발견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하고 하는데 미처 저희가 인지를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 빨리 저희가 찾아내서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시행 반년 만 형사공탁 60%증가..."꼼수감형 막아야", "합의 안 되면 공탁"...형사공탁제도 '악용', 피해자 정보 없이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그 시행 자체만으로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쉽게 '피해의 회복'을 감형 요소로 주장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단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현재 위 제도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점을 강조한 기사는 시의 적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해당 보도들을 살펴보면, “합의 안 되면 공탁”...형사공탁제도 ‘악용’ 기사에서는 제도에 대한 도입취지와 간략한 설명, 감형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의 소개, 기습 공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당혹감을 보도합니다. 이어 방송된 ‘시행 반년 만에 형사공탁 60%증가...’꼼수감형 막아야” 기사에서는 유일한 감형수단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제도를 안내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전하고,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원에 위 공탁에 대한 수령거절 등 의견을 제시한 경우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와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덧붙여 제도 보완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등 상당히 심도 있는 취재와 보도가 돋보입니다. 물론 피해자를 위한 공탁 제도의 보완에 보도의 초점이 맞춰져야하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탁이 ‘유일한 감형 수단’이라는 꼼수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기에 공탁 제도에 대한 선입견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위 보도에서는 진심어린 반성과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과정을 생략한 채 감형만을 위한 공탁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면 이것 역시 감형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반성을 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공 불가 또는 무리한 합의 조건 앞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유일한 감형 수단’ 때문만이 아니라 공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들의 입장도 균형 있게 보도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형사공탁 제도 자체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대두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 저희가 잘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와 원고 양쪽의 입장을 좀 더 균형 있게 다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성희 위원

- (고용브리핑365) 범법지대 ‘5인 미만 사업장’ (8/18),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 - 상사의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던 20대 직장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한 보도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과 정부 통계에서조차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이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정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목 ‘범법 지대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갑질119라는 단체에서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내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서 범법지대가 된 셈’이라는 기자의 설명이 있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점을 강조하고자 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제목에서 다른 설명 없이 5인 미만 사업장 앞에 ‘범법지대’라는 문구를 배치한 것은 자칫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범법지대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자막을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다라는 표현도 있고, 빈틈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5인미만 사업장은 다 범법지대구나 하고 오해 할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자들이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얘기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 8월15일, '중국인 직원 더 뽑아요...유커 맞이 분주한 명동' 이란 제목으로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관광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균형감 있게 내용을 다룬 깔끔한 보도였습니다. 관광1번지로 불리는 명동이 바빠지고 있다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현장 상인 인터뷰로 현장을 스케치하고, 관광객 추이도 그래프를 활용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면세점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과 인터뷰, 그리고 한국은행 분석 자료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우려사항이나 부정적인 요인들도 함께 언급하며, 향후 관광객 유치 방향에 대한 제언까지 짚었습니다. 이슈가 현장감 있게 잘 전달되었고, 객관적 데이터와 분석 자료, 전문가 인터뷰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해당 이슈를 간결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뉴스를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와 같이 간략하지만 짜임새 있게 구성한 보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뉴스 외에 홈페이지, App, 네이버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되는 뉴스피드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이슈를 좀 더 쉽게 이해하거나 연합뉴스TV와의 접점을 넓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뉴스피드로 제공되는 콘텐츠 중에는 다다를인터뷰, 현장잇슈, 배달잇슈, 월드잇슈와 달리 3분 증시, 월드&이슈, 출근길인터뷰 등은 뉴스의 일부코너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데, '경제읽기', '기업기상도'처럼 카테고리화가 가능한 코너를 뉴스피드로 제공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필요하겠으나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는 의견을 회의시작 한 주전에 드렸는데 며칠전에 이 메뉴가 추가가 됐더라구요. 어쨌거나 반영하신 것만큼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변화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좀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구독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인 직원 더 뽑아요...유커 맞이 분주한 명동',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취재영역을 떠나 상황과 데이터, 내용 구조가 잘 짜인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12 뉴스센터]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영장청구하면 심사 받을 것"(8.17), 저를 비롯해 동

료들과 이 뉴스를 함께 보면서 2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취재기자의 허가 꼬여 멘트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비슷한 실수를 몇 번이나 연달아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앵커가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했을 때 첫 화면에서 취재기자는 "네, 저슨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라고 살짝 허가 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대표는 바로 청사로 들어가지 않고,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라는 멘트가 뉴스에서 "즈르기서 직접 들어보시죠."처럼 부정확한 발음으로 들렸습니다. 또한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동의 없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라는 멘트는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로 허가 꼬이면서 같은 표현을 두 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250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멘트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십, 이백오십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요."라고 허가 꼬인 모습이 나와 오죽하면 취재기자가 이날 많이 긴장했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던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단 점은 잘 알고 있으나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 두 번째는 실시간 좌우 스크롤 자막 뉴스의 오타입니다. 뉴스 보도 중에 코바코 공익광고 팀에서 공모전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관련인데 이 때 자막이 "공익광고제를 개최합니다"라는 실시간 좌우 스크롤 자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의 허가 꼬이는 것은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막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만큼 신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도구라 생각합니다.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의 뉴스 자막의 오타 관련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잘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의 무더위가 무척 강해 취재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도 충실하고 전문적인 보도를 위해 애쓰신 연합뉴스TV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연합뉴스TV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가끔씩 보면 잘 하던 기자들도 그날 상황에 따라서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그런 것까지 이해주지는 않죠. 방송기자들은 프로인데 프로들이 저렇게 해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 자막도 사람이 입력하다보니 오타가 나옵니다. 보통 PD들 보조하는 AD들이 직접 키보드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자막이 많은 뉴스 채널들은 100%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생방송이 아니고 제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타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수를 여러 번 그 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생방송은 사실은 감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쳐서 입력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봐 주지 않습니다. 오타 하나로 방송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니까요.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서면제출)

- 이번 달에는 연합뉴스TV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일요일 오후 7시15분 방송, 22분), <명품리포트 맥>(일요일 오전 9시25분, 11분), <뉴스프리즘>(토요일 저녁9시40분, 15분) 등의 탐사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알다시피 사회 이슈를 심층적, 종합적,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연합뉴스TV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스트레이트 또는 단신보도로는 충분한 정보를 담기에 아쉬웠던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규, 빈집 문제, 은둔형 외톨이, 업종별 기업 기상도, 교권 추락 문제, 흥기 난동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모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중견 간판 기자들이 문제의 중요성을 짚어내고, 사례를 제시하며, 갈등 구조의 쟁점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공론장을 풍성하고 깊이 있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탐사물임에도 현상에 치우친듯한 보도, 이슈의 쟁점을 진영 간 다툼으로 제시하는 보도, 모호한 정책 해법 제시 등이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박원순 다규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상호 공방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큰 문제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치관 왜곡, 심각한 청년 문제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층 탐사물이라면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스트레이트 뉴스와 달리 진전된 논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각의 관점이 갖는 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탐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했으면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탐사 심층 보도물은 연합뉴스TV 보도가 갖는 속보성, 단신성 보도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공론장의 역할을 굳건히 할 방안이라고 봅니다. 연합뉴스TV가 앞으로도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더 많은 애정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 좀 전에 서신석 위원님의 답변에 탐사 보도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및 같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스크롤, 8월 1일 20시 뉴스 자막 오타: 잼버리 뉴스 자막의 한쪽마을(x)-->한옥마을(o), 8월 6일 뉴스1번지 자막 오타: 책상(X) -->책상(o)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 8월 15일 뉴스08 <“중국인 직원 더 뽑아요”...유커 맞이 분주한 명동>보도에서 앵커 및 기자가 중국인 관광객 ‘유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방송심의 규정에도 있습니다. 우리말 중심으로 방송용어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용 전개나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겠지만 좌상단에 고정적으로 ‘유커가 돌아온다’로 표시하고 있는데 ‘유커’라는 단어를 부각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말(중국인 관광객)을 병기해서 사용하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의 눈높이와 우리말 설명은 항상 병기해서 자막을 표현했으면 시청자의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방송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
- 8월 22일 긴급 뉴스 속보 자막에 “김남국 의원 내년 불출마” 이 뉴스가 속보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이 뉴스가 속보성으로 가치가 있는지 선별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유커라는 말은 사실 몇 년 전에 중국인들 많이 볼 때는 많이 쓰긴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유커라고 자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꼭 우리 말과 함께 같이 얘기해주거나 병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중국인이 몇 년 동안 잘 안 오다 보니까 다시 유커를 쓰게 되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시청자가 100% 인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말을 병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앵커도 마찬가지로 유커 중국인 관광객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속보성 자막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긴급으로 나가는 긴급 뉴스 자막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시점에서 보면 뉴스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보내는 속보성 자막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내년 불출마'는 두 번째 속보성 자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일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앞두고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느 정도 그때 시점에서 불 때는 속보성 자막으로 나와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속보성 자막이나 긴급성 자막이나 저희가 붉은 계통 바탕에 흰색으로 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저게 긴급 뉴스인지 속보성 자막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오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속보 자막의 경중에 따라서 색깔을 조금 더 달리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스크롤 자막은 지금 연합뉴스에서 갓 퇴직하신 시니어 기자 분들 중에서 저희가 1~2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스크도 직접 맡기고 있습니다. 노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겁니다만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이런 문제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데 데스크 구조까지 만들려면 인력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문제라서요. 어떻게 하면 실수와 잘못을 줄일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본부장님,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8월 시청자위원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